

## 동반성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

임 종 욱\*

### I. 문제 제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창조경제의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이후 창조경제가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원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연구논문 및 단행본이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동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범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기준 마련·지침·지정·점검,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업종간 갈등요인을 발굴, 사회적 합의 도출, 동반성장 성공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대·중소기업 대표자간 소통의 중추적 역할 및 규범준수 교육의 기능 및 역할 수행하는데 있다(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황인학(2013)의 연구에서 창조경제의 성패 여부는 기업이 정신의 진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업이 정신은 흔히들 기업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또는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업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이고 학생, 주부,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자기 분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과거의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려는 노력 모두가 기업이 정신의 소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동

\*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업가 정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오중석과 이용탁, 1999; 박동수와 구언희, 2007; 윤보현과 박준병, 2007; 최무진, 2013; Zahra, 1991; Lumpkin & Dess, 1996 등).

연구결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과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의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 및 경영자가 자의로 회계수치를 조정하는 재량적발생액의 이익관리에 의한 경영자 회계윤리 수준 지표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을 측정·확산시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정도 및 경영자 회계윤리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실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II. 선행연구

### 2.1 동반성장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반성장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김재형과 김범석(2013)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 산출 시 평가대상 기업이었던 56개 대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동반성장지수 등급에 따른 재무성과 및 추가수익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의 경우는 동반성장지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총자산회전기간과 자본회전회전기간은 동반성장지수 등급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은 기업의 효율성과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비효율을 야기하지만 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시장에서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더해져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추가수익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김범석 등(2013)은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56개 대기업을 동반지수 등급과 회계계정을 통해 산출가능한 SCM의 운영효율성 지표인 현금화주기와의 관계를 비모수 검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현금화주기와 동반성장지수 간에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분석 대상인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선행연구와는 달리 현금화주기와 재무성과와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동반성장지수가 좋을수록 재무성과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박승욱 등(2013)은 국내 109개 1차 협력사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1·2차 협력사 간의 인지적 및 관계적 사회자본은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동반성장 의지는 1차 협력사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 중 인지적 사회자본이 동반성장 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차 협력사가 목표와 이해를 공유할 때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의지가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문성 등(2011)은 협력이 경영성과의 향상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종현 등(2012)은 기업의 동반성장 정책 발표가 기업의 재무적인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동반성장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지는 못한 것이 한계임을 명시), Brews와 Purohit(2007)은 동반성장 정책의 발표 시점에 대기업 측면에서 대규모의 투자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게 됨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되지만, 동반성장 정책 또한 투자의 일환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 2.2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김선화와 이계원(2013)은 CSR의 동기요인, CSR의 성과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CSR과 회계투명성과의 관계, CSR의 성과측정 및 공시문제 등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하고 있다. 김용성 등(2010)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업외부의 윤리적 행위인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기업내부의 회계적인 비윤리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익조정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지수 중 사회지수는 재량적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윤리적 행위인 사회지수가 높을수록 기업내부의 비윤리적 행위인 이익조정이 줄어들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환경지수와 경제지수는 재량적발생액과 유의적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이는 환경지수나 경제지수가 높은 기업이 회계적 이익조정과 같이 기업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도 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윤상(2011)은 기업의 외면적 윤리행위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최초)발행 및 발행중지와 기업의 내면적 윤리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당기순이익 0(영)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일관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반혜정(2013)은 기업의 사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 수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유도하는지를 검증하여 다양한 사업부분을 영위하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그리고 활발한 해외매출로 적극적인 국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사회봉사나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활동과 같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요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재량적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투명한 재무보고 실무로 이어져 이익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현정과 문두철(2013)은 CSR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 이익조정 및 이익지속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CSR을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을 적게 하며 이익지속성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CSR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CSR의 연속성에 따른 회계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연속적으로 CSR을 실시하는 기업은 비연속적으로 CSR을 실시하는 기업보다 이익조정을 적게 하며 이익지속성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며 CSR을 연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회계명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Chih 등(2008)은 46개국 1,653개 기업의 CSR 관련 특징이 공개된 재무정보의 질에 양(+) 혹은 음(-)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CSR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는 완화되었으며, 이익의 손실과 감소회피는 감소되었고, 공격적 이익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Hong과 Andersen(2011)은 사회적 책임과 이익관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적 책임 기업이 이익의 질이 더 높고, 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에서 더 낮아지며, 이들 양자는 결국 재무보고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Prior 등(2008)은 26개국 593개 기업의 표본을 이용하여 CSR과 이익관리 실무간의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으며, 이익관리와 CSR의 결합은 재무성과에 음(-)의 관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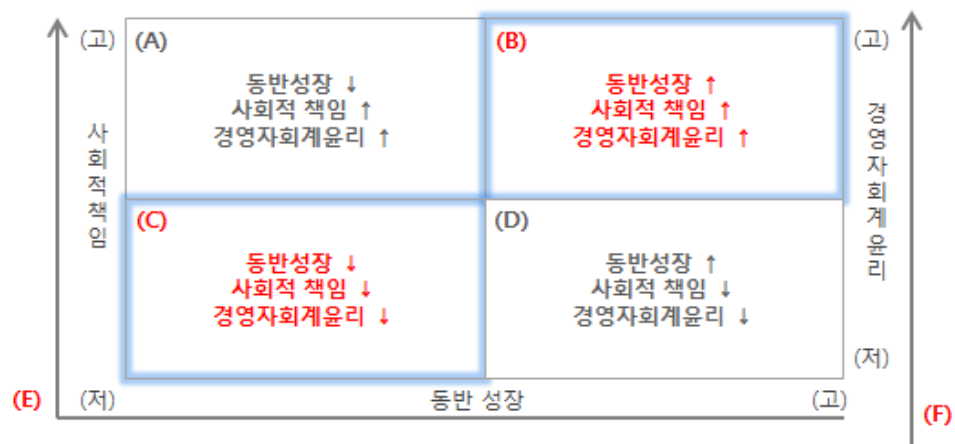
또한 Scholterns와 Kang(2013)은 이익관리가 SCR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10개 아시아 국가의 1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그들은 투자자 보호와 이익관리와 마찬가지로 CSR과 이익관리간에 역의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였고, 이익관리에 대해 이익유연화와 공격적 이익관리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CSR을 갖는 아시아 기업은 이익관리 수준이 낮으며, 투자자 보호수준은 이익관리와 음(-)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SR은 투자자 보호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Mohamed 등(2014)은 재량적발생액에 의한 이익관리의 현상에서 경영자 행위, 더 구체적으로 이익관리의 증감으로 CSR의 영향에 초점을 둔 대리인 문제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증결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CSR 활동은 회계조작을 조장하지는 않으며, 재량적발생액은 CSR과 양(+)으로 관련되지 않았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경영자의 회계윤리간의 상호 관련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측정한 동반성장지수가 사회적 책임지수 및 경영자 회계윤리 수준과 관련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그리고 경영자 회계윤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래 <그림 3-1>에서 (B)와 (C) 영역이 본 연구의 핵심 연구내용이다. 즉,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동반성장지수가 높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영자의 관리가능한 이익관리수준도 낮아져 경영자 회계윤리수준은 높아진다는 가정이다.



<그림 3-1>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인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의 관계, 그리고 본 연구의 새로운 연구 분야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련성(E 영역),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경영자 회계윤리와의 관련성(F 영역)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경영자 회계윤리의 상호 관련성(B, C 영역)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연구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 ① 연구가설 1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연구가설 2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연구가설 3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영향을 미친다.

### 3.2 검증모형의 설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실증모형을 통해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연구모형 및 추가연구 모형을 설계한다. 연구모형 설계는 선행연구(Dechow and Dichev 2002; Francis et al. 2005, Hong and Andersen, 2011)과 같이 통제변수로 영업사이클, 규모, 매출액,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을 선정하였으며, 본 표본이 여러 산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분류를 추가하였다.

### 3.2.1 모형 1: 연구가설 1 검증모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1을 설계하였다. 모형 1은 사회적 책임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 책임 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 예상된다.

$$CAE_{i,t} = \alpha_0 + \alpha_1 CSR_{i,t} + \alpha_2 OC_{i,t} + \alpha_3 SIZE_{i,t} + \alpha_4 SAL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NI_{i,t} + \alpha_7 IND_{i,t} + \epsilon_{i,t} \quad (\text{모형 1})$$

$CAE_{i,t}$ =경영자 회계윤리,  $CSR_{i,t}$ =사회적 책임,  $Ln OC_{i,t}$ =영업사이클,  $SIZE_{i,t}$ =기업규모,  $SALE_{i,t}$ =매출액,  $CFO_{i,t}$ =현금흐름,  $NI_{i,t}$ =당기순이익,  $IND_{i,t}$ =산업분류<sup>2)</sup>

### 3.2.2 모형 2: 연구가설 2 검증모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2를 설계하였다. 모형 2는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면 동반성장 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 예상된다.

$$CSR_{i,t} = \alpha_0 + \alpha_1 CP_{i,t} + \alpha_2 OC_{i,t} + \alpha_3 SIZE_{i,t} + \alpha_4 SAL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NI_{i,t} + \alpha_7 IND_{i,t} + \epsilon_{i,t} \quad (\text{모형 2})$$

$CP_{i,t}$ =동반성장

2) 단순성과 비교에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기업규모에 대한 조정을 한 뒤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강원·한창수(2005)는 유형별 산업분포의 차이는 각 소유지배유형의 성과를 비교할 때 산업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산업특성이 경영성으로 연결될 경우 소속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간의 경영성과를 비교하면 잘못된 분석이 도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표본기업이 제조업에 속해 있지만 여러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표준분류 9차(중분류)에 의한 산업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 3.2.3 모형 3: 연구가설 3 검증모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3을 설계하였다. 모형 3은 동반성장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면 동반성장 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 예상된다.

$$CAE_{i,t} = \alpha_0 + \alpha_1 CP_{i,t} + \alpha_2 OC_{i,t} + \alpha_3 SIZE_{i,t} + \alpha_4 SALE_{i,t} + \alpha_5 CFO_{i,t} + \alpha_6 NI_{i,t} + \alpha_7 IND_{i,t} + \epsilon_{i,t} \quad (\text{모형 3})$$

### 3.2.4 추가 모형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4를 설정하였다. 모형 4는 모형 2에  $CP \times CAED$  교차변수가 추가로 포함된 모형이다.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경영자 회계윤리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동반성장과 관련된 분석을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수한 경영자 회계윤리수준이 동반성장과 관련성이 있음을 분석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CSR_{i,t} = \alpha_0 + \alpha_1 CP_{i,t} + \alpha_2 CAED_{i,t} + \alpha_3 CP \times CAED_{i,t} + \alpha_4 OC_{i,t} + \alpha_5 SIZE_{i,t} + \alpha_6 SALE_{i,t} + \alpha_7 CFO_{i,t} + \alpha_8 NI_{i,t} + \alpha_9 IND_{i,t} + \epsilon_{i,t} \quad (\text{모형 4})$$

$CAED_{i,t}$  = 경영자 회계윤리 더미변수

또한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경영자 회계윤리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5를 설정하였다. 모형 5는 모형 3에  $CP \times CSR$  교차변수가 추가로 포함된 모형이다.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동반성장과 관련된 분석을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가 동반성장과 관련성이 있음을 분석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경영자 회계윤리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CAE_{i,t} = \alpha_0 + \alpha_1 CP_{i,t} + \alpha_2 CSR_{i,t} + \alpha_3 CP \times CSR_{i,t} + \alpha_4 OC_{i,t} + \alpha_5 SIZE_{i,t} + \alpha_6 SALE_{i,t} + \alpha_7 CFO_{i,t} + \alpha_8 NI_{i,t} + \alpha_9 IND_{i,t} + \epsilon_{i,t} \quad (\text{모형 5})$$

$CSR_{i,t}$  = 사회적 책임 더미변수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① 동반성장(CP)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을 3 단계, 즉 우수 이상(최우수 포함), 양호, 보통 이하(개선 포함)으로 구분하여 동반성장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sup>3)</sup>.

#### ② 사회적 책임(CSR)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항목으로 지배구조, 사회, 환경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ESG 통합부문, 지배구조부문, 사회부문, 환경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한시적 혹은 문서상으로만 볼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공하는 ESG 평가등급<sup>4)</sup>을 사회적 책임의 대용변수로 사용하며 ESG 통합부문 평가등급 A 이상: 2점, B+: 1점, ESG 평가등급이 없는 기업은 0점을 부여하였다.

#### ③ 경영자 회계윤리(CAE)

경영자 회계윤리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였다. Kothari et. al.(2005)은 수정Jones 모형(1995)에 상수항과 경영성과를 통제한 총자산이익률(ROA)을 추가함으로써 수정 Jones 모형(1995)이 갖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thari et. al.(2005)의 모형을 경영자 회계윤리의 대용변수로 사용한다.

$$\frac{TA_{i,t}}{A_{i,t-1}} = \hat{\beta}_0 \left( \frac{1}{A_{i,t-1}} \right) + \hat{\beta}_1 \left(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_{i,t-1}} \right) + \hat{\beta}_2 \left( \frac{PPE_{i,t}}{A_{i,t-1}} \right) + \epsilon_{i,t}$$

$TA_{i,t}$  = 회계발생액,  $REV_{i,t}$  = 매출액,  $REC_{i,t}$  = 매출채권,  $PPE_{i,t}$  = 상각성유형자산,  
 $A_{i,t-1}$  = 전기말의 총자산

$$\widehat{DA}_{i,t} = \frac{TA_{i,t}}{A_{i,t-1}} - \left[ \hat{\beta}_0 \left( \frac{1}{A_{i,t-1}} \right) + \hat{\beta}_1 \left(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_{i,t-1}} \right) + \hat{\beta}_2 \left( \frac{PPE_{i,t}}{A_{i,t-1}} \right) \right] + \hat{\beta}_3 lagged(ROA_{i,t-1})$$

3)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 · 공표함으로써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위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를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를 2011년부터 산정 · 공표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은 4개의 평가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 2013년에는 4개의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발표하였다.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독자적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동 모형은 ISO26000 등의 국제표준을 따르되 한국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평가모형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등급은 2011년부터 기존의 8단계에서 5단계(C+, B, B+, A, A+)로 등급을 부여하며 B+ 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만을 공시하고 있다.

재량적발생액은 그 자체 변수를 이용하거나 절대값을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 이익관리 관련 선행연구들은 절대값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sup>5)</sup>, 본 연구에서도 Kothari et. al. 모형(2005)으로 계산된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 ④ 영업사이클(OC)

영업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영업사이클} = \text{자연로그} \left( \frac{360}{\text{매출액}/\text{매출채권}} + \frac{360}{\text{매출원가}/\text{재고자산}} \right)$$

#### ⑤ 기업규모(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⑥ 매출액(SALES) : 매출액/총자산

#### ⑦ 현금흐름(CFO) : 현금흐름/총자산

#### ⑧ 당기순이익(ND) : 당기순이익/총자산

#### ⑨ 산업더미(IND)

산업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 ⑩ 더미변수

사회적 책임 더미변수(CSRD)로서 ESG 평가등급이 있는 기업은 1, 없는 기업은 0, 그리고 경영자 회계윤리 더미변수(CAED)는 Kothari et. al. 모형(2005)으로 계산된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이 중앙값 이상이면 1, 아니면 0을 임의로 부여한다.

## IV. 실증적 분석

### 4.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지수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2011년 56개사, 2012년 73개사, 2013년 100개사) 중에서 유가증권시장(KSE)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간동안 계속 상장되지 않거나 연속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

5)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은 이익의 질에 대한 전반적 차이점 및 경향을 측정할 수 있고, 방향에 상관없이 어느 기업이 이익조정을 취했는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광운, 2011).

하고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에프앤가이드의 DataGuide Pro에서 결산재무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 1) 한국거래소 상장 제조기업
- 2) 12월 결산법인
- 3)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 4) 극단치 표본 제외

〈표 1〉 표본선정기준

| 기업수<br>급                  | 평가등 | 우수 이상 | 양호 | 보통이하 | 계   |
|---------------------------|-----|-------|----|------|-----|
| 평가대상 총 기업수                |     | 65    | 85 | 79   | 229 |
| 2011                      |     | 6     | 20 | 30   | 56  |
| 2012                      |     | 9     | 29 | 35   | 73  |
| 2013                      |     | 50    | 36 | 14   | 100 |
| 제조기업 수(12월 결산법인)          |     | 36    | 38 | 27   | 101 |
| 2011                      |     | 4     | 11 | 10   | 25  |
| 2012                      |     | 4     | 17 | 12   | 33  |
| 2013                      |     | 28    | 10 | 5    | 43  |
| 제외 표본수<br>연속자료 입수 불가(결측치) |     | 2     | 1  | 2    | 5   |
| 최종 표본 기업수                 |     | 34    | 37 | 25   | 96  |
| 극단치 제거(상하 1%)             |     | 1     | 1  | 0    | 2   |
| 최종 표본수                    |     | 33    | 36 | 25   | 94  |

본 연구의 총표본수는 〈표 1〉과 같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229개중에서 제조기업 101개 중에서 연속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5개 기업을 제외한 96개 기업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 인 경영자 회계윤리의 대응변수인 재량적발생액의 상하 1%에 해당되는 통계치를 극단치라고 가정하고 2개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94개 관측치를 실증검증에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연구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2010년 9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산정·발표하였기 때문이며, 윈도우용 SAS 9.4로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 4.2 기초분석

### 4.2.1 기술 통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반성장(*CP*)은 평균 2.0851, 사회적 책임(*CSR*)은 1.1914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은 이용한 경영자의 회계윤리(*CAE*)는 0.0552로서 최솟값 0.0032, 최댓값 0.2049로 경영자의 이익관리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포함된 본 연구표본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에서도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에 의한 이익관리를 행하고 있어 경영자의 회계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수로 독립변수인 영업사이클(*OC*)은 평균 4.4949로 최솟값 3.4371, 최댓값 5.2747, 규모(*SIZE*)은 평균 23.0686로 최솟값 20.6343, 최댓값 26.0895로 최솟값과 최댓값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매출액(*SALE*)은 평균 0.9434,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현금흐름(*CFO*)은 0.0542,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당기순이익(*NI*)은 0.0557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량

| 변수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i>CP</i>   | 94 | 2.0851  | 0.7850 | 1.0000  | 3.0000  |
| <i>CSR</i>  |    | 1.1914  | 0.8331 | 0       | 2.0000  |
| <i>CAE</i>  |    | 0.0552  | 0.0434 | 0.0032  | 0.2049  |
| <i>OC</i>   |    | 4.4927  | 0.3791 | 3.4371  | 5.2746  |
| <i>SIZE</i> |    | 23.0686 | 1.2175 | 20.6343 | 26.0895 |
| <i>SALE</i> |    | 0.9434  | 0.3889 | 0.3247  | 2.4172  |
| <i>CFO</i>  |    | 0.0542  | 0.0836 | -0.2577 | 0.3063  |
| <i>NI</i>   |    | 0.0365  | 0.0557 | -0.2572 | 0.1423  |

*CP*=동반성장, *CSR*=사회적 책임, *CAE*=경영자 회계윤리, *OC*=영업사이클, *SIZE*=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SALE*=매출액/총자산, *CFO*=영업활동으로부터현금흐름/총자산, *NI*=당기순이익/총자산

### 4.2.2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연구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동반성장(*CP*) 변수와 사회적 책임 변수(*CSR*)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경영자 회계윤리(*CAE*)와 영업사이클(*OC*) 변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주요 독립변수인 기업규모(*SIZE*), 현금흐름(*CFO*), 당기순이익(*NI*), 산업터미(*IND*) 변수는 모두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매출액(*SALE*)은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변수간 피어슨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낮지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sup>6)</sup>.

〈표 3〉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             | <i>CP</i>         | <i>CSR</i>        | <i>CAE</i>        | <i>OC</i>          | <i>SIZE</i>       | <i>SALE</i>       | <i>CFO</i>        | <i>NI</i>  | <i>IND</i> |
|-------------|-------------------|-------------------|-------------------|--------------------|-------------------|-------------------|-------------------|------------|------------|
| <i>CP</i>   | 1.000<br>9        |                   |                   |                    |                   |                   |                   |            |            |
| <i>CSR</i>  | 0.352<br>9<br>*** | 1.000             |                   |                    |                   |                   |                   |            |            |
| <i>CAE</i>  | -0.014<br>2       | 0.148<br>4        | 1.000<br>0        |                    |                   |                   |                   |            |            |
| <i>OC</i>   | -0.117<br>8       | 0.058<br>3        | -0.016<br>2       | 1.000<br>0         |                   |                   |                   |            |            |
| <i>SIZE</i> | 0.422<br>7<br>*** | 0.435<br>5<br>*** | 0.200<br>7<br>**  | -0.254<br>9<br>*** | 1.000<br>0        |                   |                   |            |            |
| <i>SALE</i> | -0.078<br>8       | 0.051<br>9        | 0.212<br>8        | -0.092<br>1        | -0.031<br>2       | 1.000             |                   |            |            |
| <i>CFO</i>  | 0.175<br>1<br>*   | 0.090<br>1        | 0.162<br>1        | 0.090<br>7         | 0.170<br>6<br>*   | 0.378<br>4<br>*** | 1.000             |            |            |
| <i>NI</i>   | 0.216<br>9<br>**  | 0.162<br>4        | 0.370<br>3<br>*** | -0.196<br>3<br>**  | 0.292<br>6<br>*** | 0.325<br>3<br>*** | 0.483<br>4<br>*** | 1.000<br>0 |            |
| <i>IND</i>  | 0.331<br>6<br>*** | 0.217<br>7<br>**  | 0.150<br>9        | -0.252<br>5<br>*** | 0.255<br>1<br>*** | -0.148<br>5       | -0.159<br>3       | 0.012<br>0 | 1.000<br>0 |

변수명 : 표 3-2 참조, *IND* 산업분류, \*\*\*, \*\*, \*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유의함

### 4.3 연구가설 검증

#### 4.3.1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및 경영자 회계윤리의 관계 분석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경영자 회계윤리간의 상호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첫째,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연구모형 1),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R-Sq는 1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적합성의 검증 결과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회적 책임 변수(*CSR*)의 회귀계수( $\alpha$ )는 t-

6) 다중공선성 통계량의 검증 결과, 고유값(eigenvalues)은 양(+), 상태지수(Condition number)는 모두 30이하, 그리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값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기타 독립변수로 당기순이익( $NI$ )은 회귀계수( $\alpha_6$ )는 t-값 2.90으로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연구모형 2),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R-Sq는 2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적합성의 검증 결과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반성장 변수( $CP$ )의 회귀계수( $\alpha_1$ )는 t-값 1.80으로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타 독립변수로 영업사이클( $OC$ )과 당기순이익( $NI$ ) 변수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매출액( $SALE$ ) 변수는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금흐름( $CFO$ )과 당기순이익( $NI$ )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동반성장과 경영자 회계윤리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연구모형 3),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R-Sq는 1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적합성의 검증 결과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반성장 변수( $CP$ )의 회귀계수( $\alpha_1$ )는 t-값 1.83으로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 $NI$ ) 변수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4〉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및 경영자 회계윤리의 관계

| 구분        |            | 연구모형 1    |          | 연구모형 2    |           | 연구모형 3    |          |
|-----------|------------|-----------|----------|-----------|-----------|-----------|----------|
|           |            | 종속변수: CAE |          | 종속변수: CSR |           | 종속변수: CAE |          |
|           |            | 회귀계수      | t-값      | 회귀계수      | t-값       | 회귀계수      | t-값      |
| 절편        | $\alpha_0$ | -0.1674   | -1.32    | -8.4063   | -3.98 *** | -0.2018   | -1.76 *  |
| CSR       | $\alpha_1$ | -0.0002   | -0.04    |           |           |           |          |
| CP        | $\alpha_1$ |           |          | 0.2034    | 1.80 *    | -0.0112   | -1.83 *  |
| OC        | $\alpha_2$ | 0.0167    | 1.33     | 0.5309    | 2.41 ***  | 0.0170    | 1.42     |
| SIZE      | $\alpha_3$ | 0.0040    | 0.96     | 0.2665    | 3.64 ***  | 0.0061    | 1.56     |
| SALE      | $\alpha_4$ | 0.0191    | 1.56     | 0.2923    | 1.32 *    | 0.0163    | 1.36     |
| CFO       | $\alpha_5$ | -0.0388   | -0.62    | -0.8871   | -0.78     | -0.0208   | -0.34    |
| NI        | $\alpha_6$ | 0.2690    | 2.90 *** | 0.7710    | 0.46      | 0.2824    | 3.10 *** |
| IND       | $\alpha_7$ | 포함        |          |           |           |           |          |
| F-값(유의수준) |            | 3.02***   |          | 4.90***   |           | 3.62***   |          |
| adj R-Sq  |            | 0.1310    |          | 0.2271    |           | 0.1647    |          |
| 표본수       |            | 94        |          |           |           |           |          |

변수명 : 〈표 3-2〉 참조, YEAR: 연도더미, \*\*\*, \*\*, \*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유의함

### 4.3.2 추가모형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아래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첫째,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연구모형 4),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R-Sq는 2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적합성의 검증 결과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반성장 변수( $CP$ )의 회귀계수( $\alpha$ )는 t-값 0.28, 경영자의 회계윤리 더미변수( $CAED$ )의 회귀계수( $\alpha$ )는 t-값 -1.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경영자 회계윤리 더미변수로 변환한 교차변수( $CP \times CAED$ )의 회귀계수( $\alpha$ )는 t-값 1.64으로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한 관계는 우수한 경영자 회계윤리수준이 동반성장과 관련성이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타 독립변수로 영업사이클( $OC$ )과 영업사이클( $OC$ ) 변수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과 경영자의 회계윤리 수준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연구모형 5),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R-Sq는 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모형적합성의 검증 결과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반성장 변수( $CP$ )의 회귀계수( $\alpha$ )는 t-값 -3.81 그리고 사회적 책임 더미변수( $CAED$ )의 회귀계수( $\alpha$ )는 t-값 -2.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라 동반성장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 더미변수로 변환한 교차변수( $CP \times CSR$ )의 회귀계수( $\alpha$ )는 t-값 3.29로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한 관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수준이 동반성장과 관련성이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경영자의 회계윤리에 공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타 독립변수로 영업사이클( $OC$ ) 변수는  $p < 0.1$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당기순이익( $M$ ) 변수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5〉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 수준별 동반성장과의 관계

| 구분                  |            | 연구모형 4    |           | 연구모형 5    |           |
|---------------------|------------|-----------|-----------|-----------|-----------|
|                     |            | 종속변수: CSR |           | 종속변수: CAE |           |
|                     |            | 회귀계수      | t-값       | 회귀계수      | t-값       |
| 절편                  | $\alpha_0$ | -7.6534   | -3.55 *** | -0.1556   | -1.34     |
| CP                  | $\alpha_1$ | 0.0420    | 0.28      | -0.0386   | -3.81 *** |
| CAED                | $\alpha_2$ | -0.6992   | -1.56     |           |           |
| CSR <sub>D</sub>    | $\alpha_2$ |           |           | -0.0674   | -2.83 *** |
| CP×CAED             | $\alpha_3$ | 0.3335    | 1.64 *    |           |           |
| CP×CSR <sub>D</sub> | $\alpha_3$ |           |           | 0.0380    | 3.29 ***  |
| OC                  | $\alpha_4$ | 0.5416    | 2.46 ***  | 0.0187    | 1.62 *    |
| SIZE                | $\alpha_5$ | 0.2472    | 3.34 ***  | 0.0056    | 1.39      |
| SALE                | $\alpha_6$ | 0.3001    | 1.35      | 0.0155    | 1.35      |
| CFO                 | $\alpha_7$ | -1.1901   | -1.03     | -0.0110   | -0.19     |
| NI                  | $\alpha_8$ | 0.6479    | 0.37      | 0.2926    | 3.36 ***  |
| IND                 | $\alpha_9$ | 포함        |           |           |           |
| F-값(유의수준)           |            | 4.14***   |           | 4.32***   |           |
| adj R-Sq            |            | 0.2330    |           | 0.2433    |           |
| 표본수                 |            | 94        |           |           |           |

변수명 : 〈표 3-2〉 참조, CAED: 경영자 회계윤리 더미, CSR<sub>D</sub>: 사회적 책임 더미

\*\*\*, \*\*, \*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유의함

## VI. 결 론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지수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9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인 동반성장 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 사회적 책임 변수는 한국지배구조원의 ESG 통합부문 평가등급, 경영자 회계윤리는 Kothari et. al. 모형(2005)으로 계산된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대리변수로 선정하였다.

검증 결과,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경영자의 재량적발생액에 의한 이익관리를 행하고 있어 경영자의 회계윤리에 문제가 있었고,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자 회계윤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동반성장이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추가분석을 통해 경영자 회계윤리수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동반성장과 관련성이 있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영자의 회계윤리에 공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경영자가 경영전권을 가지고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에 대한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동반성장에 대한 결과와 경영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이익관리 수준을 측정하여 경영자 회계윤리 수준을 측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시켜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 등에 관한 실증 자료를 제시하여 경영자에게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책임, 회계윤리 등에 경각심 및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 회계윤리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초기연구로서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데 학문적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 성과를 확산시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동반성장, 경영자의 도덕적 수준, 경영윤리 등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함으로써 기업은 적극적으로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도 패권과 배제보다는 공존과 배려의 시장문화를 창조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대학에서 경영 및 회계윤리는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 및 회계윤리 교육에 의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대학의 경영 및 회계윤리 교과목의 사례분석에서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및 경영자의 회계윤리 실천사례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 2005.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2005. 3).
- 김범석, 하승인, 민재형. 2013. “비모수 방법을 이용한 SCM 현금화주기와 동반성장과의 관계.” 로지스틱스연구, 21(1): 35-49.
- 김용성, 허영빈, 고성삼. 2010.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8(3): 33-57.
- 김재형, 김범석. 2013.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학, 30(2): 79-95.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inwingrowth.or.kr>)
- 박동수, 구언희. 2007. “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6): 2979-3011.
- 박승욱, 이돈희, 이향재. 2013.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간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의지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4(4): 513-535.
- 반혜정. 2013. “기업의 다각화 전략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이익의 질,” KBR, 17(3): 27-52
- 백종현, 권순범, 최병구. 2012.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지식경영연구, 13(5): 139-160.
- 오종석, 이용탁. 1999.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2: 285-307.
- 윤보현, 박준병. 2007. “벤처기업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2(3): 145-168.
- 이광윤.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회계이익조정과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제정의지수(KEJI Idex)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문성, 박상범, 전인우. 2011.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협력동인, 경영성과의 상호관련성 분석.” 물류학회지, 21(5): 347-371.
- 이선화, 이계원.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연구 방향.” 대한경영학회지, 26(9): 2397-2425.
- 이윤상. 2011. “지속가능보고서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회계정보연구, 29(4): 111-132.
- 최무진. 2013.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8(1): 235-255.
- 최현정, 문두칠.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회계투명성간의 관계.” 회계학연구, 38(1): 135-171.
- 황인학. 2013. 창조경제의 요체는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연구원.
- Mohamed, T., Faouzi, J., & Olfa, B. J. 2014. “The international between environmental

- accounting practice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Studies Quarterly*, 5(3): 99-112.
- Beaudoin, C. A. 2008. “Earning management: The role of agency problem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aper for the Degree of Philosophy. Drexel University.
- Brews, P. and Purohit, D. 2007. “Strategic Planning in Unstable Environments.” *Long Range Planning*, 40(1): 64-83.
- Chih, H. L., Shen, C. H., & Kang, F. C. 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or prote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som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79: 179-198.
- Dechow, P. M., & Dichev, I. D.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Accounting Review*, 77(4): 35-59.
- Francis, J., LaFond, R., Olson, P., & Schipper, K. 2005. “The market pricing of accruals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295-327.
- Hong, Y., & Andersen, M. L.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arnings managemen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4: 461-471.
- Kothari, S. P., Leone, A. J., & Wasley, C. E.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163-197.
- Lumpkin, G.T. & Dess, G.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Prior, D., Surroca, J., & Josep, A. T. 2008. “Are socially responsible managers really ethica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16(3): 160-177.
- Zahra, S. 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 Scholterns, B. & Kang, F. C. 201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arnings management: evidence from asian econom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nvironmental Management*, 20(2): 95-112.